

5년만의 홈경기...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오늘 승리 쏜다”

골감독 물오른 강경민·든든한 원선필 등 “홈팬에 승리 선물” 남다른 각오 부산시설공단에 설욕 다짐...수용인원 절반 723명 입장 가능, 무료 관람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 선수단이 5년만에 홈팬들을 만난다.

광주도시공사는 13일 오후 7시 광주 빙고체육관에서 부산시설공단과 2021-2022 SK핸드볼코리아리그 1라운드 3번째 경기를 치른다.

광주 홈경기는 지난 2017년 6월 이후 5년만에 열린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빙고체육관 관람객 수용인원(1477명)의 절반인 723명만 입장할 수 있다. 경기는 무료관람이다.

지난 2019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기장에서 홈팬들과 만나는 오세일 감독의 각오는 남다르다. “시즌 매경기 최선을 다해 싸우되, 홈경기만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것이다.

그는 “선수들이 당연히 홈에서 이기고 싶어한다. 선수들의 각오가 남다르고 페이스도 좋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이번 홈경기를 ‘디펜딩 챔피언’ 부산시설공단과 천적관계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버리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부산시설공단과 역대 상대전적에서 1승5패로 열세다.

설욕을 버리는 홈경기에는 강경민, 원선필, 김지혜, 송혜수 등 주전들이 출전한다. 골키퍼 손민지, 박조은도 가세해 배수진을 친다.

강경민은 최근 2경기에서 25골을 뽑아내는 등 변함없는 골감독을 선보였고 원선필도 팀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광주도시공사와 맞붙는 부산시설공단은 개막 이후 2연승을 거두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내 여자부리그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선수를 가동한 덕분이다. 주전 선수들이 이적해 전력누수가 우려됐으나, 골키퍼 리마 가비나 플라비아(등록명 가비나), 발레리아 후타바(등록명 리에라) 등 외국인 선수 2명이 제물을 해내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15일 서울시청, 28일 컬러풀대구, 30일 인천시청과 홈에서 격돌한다.

한편,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16년 광주도시공사로부터 여자핸드볼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시즌 4위, 리드통합 3위에 올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강경민이 지난 6일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인천시청전에서 슈팅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시프린 월드컵 통산 47승 ‘신기록’

알파인 스키 여자회전 최다승

미케일라 시프린(27·미국)이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 여자 회전에서 통산 47승째를 따냈다.

시프린은 1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솔라드링에서 열린 2021-2022 FIS 알파인 월드컵 여자 회전 경기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 32초 66으로 우승했다.

2위는 1분 32초 81을 찍은 페트라 블로바(슬로바키아)다.

시프린은 이번 우승으로 월드컵 회전에서만 통산 47승째를 따내 알파인 월드컵 단일 종목 최다 우승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시프린의 회전, 남자부 잉에마르 스텐마르크(은퇴·스웨덴)가 대회전에서 따낸 월드컵 46승이었다.

전 종목을 통틀어 알파인 최다승 기록은 스

텐마르크의 86승이고, 여자부 최다승 기록은 린지 본(은퇴·미국)의 82승이다.

시프린은 이날 우승으로 73승을 기록해 남녀를 통틀어 현역 최다승, 은퇴 선수를 포함해서는 스텐마르크와 본에 이은 3위에 올라 있다.

지난해 12월 말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시프린은 완치 후 처음 우승을 차지했다.

시프린은 1차 시기 45초 70으로 5위에 머물렀고, 1차 시기 1위 블로바에 0.15초 뒤졌다.

그러나 2차 시기를 46초 96의 가장 빠른 기록으로 끝내 역전에 성공했다.

이번 시즌 9차례 열리는 알파인 월드컵 여자회전 경기 가운데 7번의 경기가 끝났고, 남은 두 차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블로바가 2021-2022시즌 회전 종합 우승을 확정했다.

이번 시즌 7차례의 여자 회전에서 블로바가 5번 우승했고, 시프린이 두 차례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시프린이 1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솔라드링에서 열린 2021-2022 FIS 알파인 월드컵 여자 회전 경기에서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겨 차준환·유영, 베이징 올림픽 출전 최종 확정

차준환, 이시형(이상 고려대), 유영, 김예림(이상 수리고)이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할 한국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로 최종 확정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경기력향상위원회는 11일 국가대표 선발전 남녀 싱글 1, 2위를 차지한 네 명의 선수를 올림픽 출전선수로 확정하고 이를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남자싱글 차준환은 국가대표 선발전 1차 대회에서 239.16점, 2차 대회에서 283.31점으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최종 순위 1위로 올림픽 티켓을 획득했다.

이시형은 1차 선발전과 2차 선발전에서 모두 2위를 기록해 상위 2명에게 주어지는 베이징 쿼터를 거머쥐었다.

차준환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고 이시형은 생애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여자싱글에선 유영이 1, 2차 선발전에서 모두 우승하며 출전권을 가져갔다. 김예림은 선발전 합산 2위에 올랐다.



유영



차준환

두 선수 모두 처음으로 올림픽에 출전한다.

네 명의 선수는 에스토니아 타린에서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4대륙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마지막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이 출전할 남녀 싱글은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데, 대표팀 선수들은 17일 인천국제공항

을 통해 출국한다.

네 선수 외에도 남자 싱글 경제석(경희대)과 여자 싱글 이혜인(세화여고)이 해당 대회에 함께 출전한다.

아이스댄스와 페어 종목엔 선수를 과감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코리안 좀비’ 정찬성 다시 한번 챔프 도전

4월 볼카노프스키와 대결

드디어 기회가 왔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35·사진)이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도전한다.

UFC의 대표적인 소식통인 아리엘 헬와이니 기자는 12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4월 9일(현지시간) 열리는 UFC 273에서 정찬성과 UFC 페더급 챔피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34·호주)의 타이틀전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애초 볼카노프스키는 3월 6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리는 UFC 272 메인이벤트에서 맥스 홀러웨이와 격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홀러웨이가 부상으로 출전이 무산되자 UFC 페더급 랭킹 4위인 정찬성에게 챔프 도전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다만 일정은 한 달 뒤로 미뤄져 한국시간으로 4월 10일 열리는 UFC 273에서 정찬성과 볼카노프스키의 타이틀전이 열린다. 대회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헬와이니 기자는 전했다.

볼카노프스키는 UFC 10연승을 달리고 있는 막강한 페더급 챔피언이다. 지난해 9월에는 브라이언 오르테가에게 심판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고 2차 방어에 성공했다.

오르테가를 꺾기 전인 2019년 12월에는 홀로웨이 역시 심판전원일치 판정으로 누르고 타이틀을 지켰다.

정찬성에게는 생애 두 번째 타이틀 도전 기회가 찾아왔다.

정찬성은 2013년 8월 한국인 최초로 UFC 타이틀에 도전한 적이 있다. 당시 챔피언 조제 알도와 맞붙어 4라운드 TKO로 패배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특송
2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특송
3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클리포드 더 빅 레드 독
4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5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특송
6관 경관의 피
9관 하우스 오브 구찌
7관 씨네캐슬
8관 씨네캐슬

7관 씨네캐슬: 씽2게더, 클리포드 더 빅 레드 독,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8관 씨네캐슬: 경관의 피,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1.04.(화)~ 29.(토)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60회 정기연주회

2022 신년음악회 Waltz & Rhapsody

일시 : 2022. 01. 14.(금)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

즐거움

문화산책